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7월 12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사도행전 1장 15-26절

설교제목 :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범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본질과 가치입니다. 형태는 본질을 담은 그릇이기에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시대적 과제는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도 보편타당한 가치는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해 가는 힘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켜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붙어야 할 본질적 가치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공동체의 탄생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누가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를 120명이라고 명명합니다.(행1:15) ‘120’이란 숫자는 고대 자료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새로운 공동체 집단을 결성할 때의 최소 수치입니다. 누가는 120명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새로운 교회공동체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행1:12-13) 그런데 눅24:51-53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차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는 이제 새롭게 탄생할 교회 공동체가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곳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체계가 이제 새로운 교회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 체계에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 체계로의 변화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인 교회공동체를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행1:16)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형제로 만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계급이 높다하더라도 서로 형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형제 공동체가 아니라, 사역 중심의 형제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행1:13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행1:13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명단은 사복음서의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과 그 기록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0:2-4에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성경 기자들이 가족의 나이 순서를 기준으로 이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역의 순서대로 바뀌어 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름은 명단의 끝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서열과 혈연 중심이 아닌 사역 중심의 형제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입니까? 본문은 12사도에서 가룟 유다로 인해 결원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12사도여야 합니까? 11사도면 안 됩니까?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편109:8에 예언된 사건인데, 그 의미는 단순한 결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란 숫자는 히브리어 충족수입니다. 12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신약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맛디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보여준 교회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교회로써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행1:15에 보면 이제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동하는 예수 공동체 앞에 베드로가 일어 섰습니다. 베드로가 일어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생긴 빈자

리를 대신 채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는 어떤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가롯 유다는 아주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여 피밭이라는 저주스러운 지명을 남겼습니다. (행1:18-19) 그런데 베드로 역시 실패한 자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잘못이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것이나 동일하게 처절한 실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 바다, 즉 디베라 바다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용서했다고 해도 만일 교회 공동체가 실패한 베드로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공동체 중심에 베드로가 일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실패한 베드로를 용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일어 서서란 그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죄인들이 나아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공동체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병든 마음이 고침을 얻고 실패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자가 설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실패를 넘어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곳입니다. 교회는 더욱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속하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일어 서서**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자 본질입니다. 제자화, 선교, 치유, 이것이 교회의 흔들림 없는 본질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를 120명쯤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예수님의 승천이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차이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왜 교회공동체는 11사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다의 결원된 자리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뽑아 12사도의 수를 채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4) 유다의 결원된 자리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뽑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 교회의 비전선언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핵심가치의 의미를 구역원들과 함께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